



4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kt위즈와의 연습경기 5차전에 선발 등판한 이의리가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지난달 28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연습경기 선발 등판, 역투하고 있는 네일. <KIA 타이거즈 제공>

이의리·네일, 나란히 3K 무실점 'OK'

KIA, 스프링캠프 마지막 연습경기 kt戰 1대0



KIA 타이거즈 가 이의리와 네일의 호투를 앞세워 스프링캠프 마지막 연습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KIA는 4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kt위즈와의 연습경기 5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KIA는 2연패 뒤 3연승으로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는 갑작스런 강우로 7회초 kt 공격을 앞두고 종료됐다. 마운드에 오른 이의리와 네일, 윤중현은 6이닝 동안 6탈삼진을 쉼내며 kt 타선을 봉쇄했다. 선발 등판한 이의리는 2이닝 동안 8

타자를 맞아 3탈삼진, 2피안타 1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했다. 투구수는 32개였다. 직구 최고 구속 147km를 찍었고, 슬라이더(133km), 커브(122km), 체인지업(130km)을 구사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이의리는 1회에 2안타 등을 맞으며 다소 불안한 출발을 했으나 실점은 허용하지 않았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중간 안타로 1루 베이스를 둔 강백호를 중견수 최원준이 정확한 송구로 2루에서 태그 아웃처리했다. 이의리는 이어진 타석의 로하스와 박병호에게 포볼과 중견 안타를 내줬지만 후속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

며 이닝을 매조지었다. 2회에는 두 타자를 연속 삼진아웃으로 돌려세우며 세 타자 연속 삼진을 기록했다. 마지막 타자는 외야플라이로 처리, 깔끔하게 아웃카운트를 채우고 임무를 마쳤다. 3회부터 마운드를 넘겨받은 외국인 투수 네일도 5회까지 kt 타선을 공공 무으며 울 시즌 대활약을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롯데와의 연습경기에서 3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한 네일은 이날도 3이닝 동안 3탈삼진, 2피안타 0실점을 기록해 팀 승리를 견인했다. 네일은 3회와 4회 세 타자를 모두 삼 자범퇴처리하는 등 5회까지 총 11명의 타자를 상대로 단 2안타만 허용했다. 6회말에 마운드에 윤중현도 1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타선에서는 서건창과 박정우가 3타수 2안타를 때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최원준(1회)과 소크라테스(3회), 최형우(4회), 변우혁(5회)이 1안타를 때렸다. 다만, KIA는 이날 8개의 안타를 치고도 타선 응집력 부족으로 1득점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KIA는 3회말 박정우와 최원준의 연속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서건창이 안타를 쳤으나 박정우가 홈에서 태그아웃됐다. 계속된 찬스에서 소크라테스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오는 6일 귀국하는 KIA는 8일 이범호 감독의 공식 취임식을 갖은 후 9일부터 NC 다이노스와 창원에서 시범경기 2연전을 소화한다. /주흥철 기자

세계실내선수권 3위 수상혁 "이젠 올림픽 준비"

2024년 실내 시즌을 '세계실내선수권 동메달'로 마무리한 '스마일 점퍼' 수상혁(27·용인시청)이 이제 실외로 나와 파리 올림픽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수상혁은 4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에미리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8을 넘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상혁은 대회 2연패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2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다. 경기 뒤 수상혁은 "연속 우승에 실패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메달을 따게 돼 다행"이라며 "재정비해서 실외 시즌을 잘 치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파리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일 귀국하는 수상혁은 신체 시계를 8월11일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결선에 맞추고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하성, MLB 시범경기 첫 홈런 터졌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4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경기에서 시범경기 6경기 만에 첫 홈런을 터뜨렸다. 5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김하성은 팀이 5-3으로 앞선 5회 무사 1루에서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김하성은 시범경기에서 12타수 5안타(타율 0.417)를 치고 홈런 1개에 3타점을 기록중이다. /AP=연합뉴스

월봉중 이승후, 대한장애인배드민턴 신인선수 발탁



2024 대한장애인배드민턴 신인 선수에 선발된 이승후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소속 이승후(14·월봉중 3·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2024년 장애인배드민턴 신인선수(지체·스포츠 등급SL3)로 선발됐다. 이승후는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 협회 주관으로 강원도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4 배드민턴 신인선수(지체부) 선발을 위한 기술평가'를 통해 선발된 6명의 신인에 포함됐다. 이번 기술평가는 차세대 장애인배드민턴 주역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열렸으며 남자 30세이하, 여자 33세 이하

의 등록 선수 및 등록 예정자를 대상으로 종목별 경기단체 추천을 받아 1차 기술평가(기초체력·실기테스트), 2차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선수들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훈련을 받게되며 훈련수당 및 훈련용품, 피복 등 기타 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지원받게 된다. 180cm가 넘는 키에 뛰어난 신체조건을 갖춘 이승후는 국가대표 꿈을 이루기 위해 담양 수북중에서 광주 월봉중으로 전학까지하며 광주장애인공공

스포츠클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이승후는 지난해 제4회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에 참가했던 이정수(18세·전남시대부고 3)와 함께 장애인배드민턴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이승후는 오는 30일 열리는 '세종시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해 SL3부분 남자 단·복식에 출전, 생애 첫 참가해 입상을 노린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광주장애인배드민턴 꿈나무인 이승후가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최근 열린 2024년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전담 지도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 전담지도자 위촉장 수여식에서 위촉장 수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생활체육광장이 열렸다'

광주시체육회,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광장 25곳 운영

광주시체육회가 이달부터 시민 누구나 새벽 저녁시간대에 야외 광장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체육광장 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되는 2024 생활체육광장 사업은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력증진에 기여하는 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 분야 중점 사업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청 야외광장, 푸른길 공원, 양산호수공원 등 25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활체육광장' 사업은 가까운 공원과 친변, 야외광장 등에서 주 3-5회 새벽·저녁 시간대를 이용해 생활체육, 라인댄스, 건강체조, 에어로빅, 태권, 국악기공, 바른자세건강운동 등 7가지 종목을 전문 강사와 함께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하루 1시간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생활체육광장이 운영되는 장소와 세부 일정 등은 광주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광주시체육회 스포츠사업팀(062-604-1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체육회는 사업 시작에 앞서 최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생활체육 광장 사업을 진행할 전담 지도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희중 기자

"변해야 산다" 독자생존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 우수 모범사례 주목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이 자생력을 갖춘 스포츠클럽의 우수 모범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2013년 제1기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출범한 빛고을스포츠클럽이 2021년부터 독자로 전환되며 자생력을 갖춘 클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빛고을스포츠클럽의 독자 전환은 꾸준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공모사업 확대에 의한 회원수 증가의 결과로 분석된다. 빛고을스포츠클럽은 자생력 확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공을 들였다. 2016년 학교체육시설개발지원사업 공모에 나서 올해까지 9년 연속 선정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도 총 사업비 3천600만원을 확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축구 등 2개 종목에 대한 강습사업을 실시한다. 2018년부터는 대한체육회의 전문선수반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농구·배드민턴·탁구 종목의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 유아농구와 취약계층 탁구·배드민턴 종목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광주시 청소년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테니스 종목을 운영했다.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체육활동 서비스 개선에도 힘썼다. 이 같은 공모사업 확대와 시설 현대화의 결과로 빛고을스포츠클럽의 회원수가 2017년 365명, 2018년 392명, 2019년 427명, 2020년 302명, 2021년 357명, 2022년 460명, 2023년 525명 등 해마다 증가했다.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회비 수입이 증가해 2022년부터 흑자로 전환됐고, 종목 개설에 따른 지도자 채용을 늘리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됐다. /박희중 기자

5월부터 돈내야 프로야구 본다

휴대폰·PC 중계 유료화 를 포함해 오는 23일 정규리그 개막전부터 4월30일까지 티빙 서비스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KBO리그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료 이벤트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티빙 이용권을 구매해야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볼 수 있다. KBO 사무국은 4일 출시되는 티빙의 광고형 스탠더드 요금제를 통해 최저가인 월 5천500원으로 KBO리그 전 경기를 즐길 수 있고, 티빙이 보유한 16만 개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CJ ENM은 생중계 서비스를 제외한 전체 경기 다시 보기, 전 경기 하이라이트, 주문형비디오(VOD), 문자 그래픽 중계 등의 서비스는 티빙에서 모두 무료 제공한다. /연합뉴스